

일본 건축사전국대회 참관기



전국대회를 마치고 축연장에서 벌어진 여흥광경

일본 건축사회연합회 전국대회는 47개 県建士會 (우리나라 시도지부에 해당) 를 순회하면서 개최한다. 따라서 한번 주관한 県建士會는 47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므로 정성을 다해 지역특성을 살려 준비를 한다.

[1]

지난해 3월 29일 본협회 회관준공행사의 일환으로 日本建築士會聯合會와 본협회가 양국 건축사 상호간의 친선과 기술정보 및 자료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교환한 각서의 취지에 따라 양국의 대회 등 행사시에 서로 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일본연합회측의 초청을 받아 본 협회 대표단 일행으로 본인을 포함한 4명 (이사 김규태, 이사 신정환, 구조분과 위원장 김창서 (비용 자기부담)이 일본의 제29회 建築士會聯合會 全國大會를 참관하고 돌아왔다.

이 대회는 전국의 건축사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대집회이며 연구발표회와 축제, 그리고 상호친선단합의 위락 및 관광을 겸한 대행사로서 일본건축사연합회 산하 47개 지방건축사회 (우리나라의 지부에 해당)가 1년에 1회씩 순회형태로 해당 지방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서로 특색있고 그 지방여건에 알맞는 행사 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어 있어 결국 47년에 한번씩 그 기회를 갖게 마련이다. 이번 29번째의 행사 주관은 山口縣 山口市建築士會인데 개최지는 인구 12만의 쾌적하고 나름대로 정돈된 조용한 작은 도시이며 이 山口가 자리하고 있는 山口지방은 일본 본토 서단에 위치하고 山口 산맥을 경계로

하여 3면이 日本海, 瀬戸内海, 響灘住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륙부는 아름다운 계곡과 삼림의 대자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室町시대에는 大内文化가 번영하여 「西의 京」이라 하였고 그 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거쳐 明治維新 개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하여 이른바 「維新의 마을」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곳 건축사는 앞으로 건강, 복지문화 및 경제 등에서 조화가 이루어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이룩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山口 전국대회의 슬로건은 「미래에 이어지는 문화와 역사! 山口大會」로 하였다 한다.

[2]

약 4천명의 건축사가 참가한 이번 전국대회의 행사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첫날 행사는 山口市에 있는 山口縣 教育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연구집회인데 제 1부는 개회식으로서 日本建築士會 聯合會 연구집회위원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하여 「건강의 즐거움 —주거와 건강」을 주제로 기조강연 (강사: 의학박사 小川씨)이 있었고 제 2부, 분과회에 있어 제 1분과회는 「시민과 함께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의 테마로 20명의 파넬라와 7명의 각 지방건축사의 발표자로

진행되었고 제 2분과회는 「주거와 건강」의 테마로 역시 발표자는 7명이었다. 제 3분과회는 「維新의 마을에서 이야기 하자... 매력있는 建築士會」의 테마로 각 지방을 대표하는 7명의 건축사가 발표를 하였는데 이들 연구발표는 그대로의 바람직스러운 「연구하고 일하는 건축사상」을 부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사 스스로의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권익신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 3부 懇親會는 연구집회행사를 환영과 좌담과 여흥 등 축제분위기 속에서 마무리짓는데 連合會 회장단과 47명의 각 지방 건축사회장이 建設省 고관관리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베풀어진 懇親이란 이름의 주연은 서로가 예찬하고 격려하며 화평과 겸손으로 건배를 이어가며 만세 3창으로 막을 내렸으며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기에 대한민국과 대한건축사협회 만세를 불렀는데 그들 전부가 소리높이 본인의 선창에 따라 삼창을 서슴치않아 가슴 후련함이 적지않았다.

둘째날은 山口市의 縣立스포츠문화 센터에서 건축사회전국대회행사가 4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 1부는 기념식수, 제 2부는 식전, 제 3부는 향토예능, 제 4부는 축연 순서로서 많은 식전에서 볼 수 있는 격식과 의전 절차에 따라 인사말씀, 축사, 회무보고 등이 있었으나 이날의 부별행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행사는 기념식수와 향토예능이었다. 이 중 향토예능은 일본 특유의 전통적인

47개
都道府県の 건축사회가
소속지역을 상징하는
縣木를 기증하여 조성한
「우정의 숲」앞에서



장구 등의 놀이로서 우리나라 향토의 특색있는 노래와 춤의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옆방 보자기에 넣어 두기로 하지만 제 1부의 기념식수행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어 소개 하겠다.

이 기념식수는 「미래에 이어지는 문화와 역사! 山口大會」의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建築士會 全國大會를 기념하여 다음에 山口를 방문했을 때의 성장을 즐겁게 보기 위하여 각 都道府縣 47개 지방에서 기증된 縣木를 식수하여 「우정의 숲」(友情の森)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 「友情의 숲」은 일본열도의 모양을 그 형태로 하여 각 지방의 지리적 위치대로 정하여 47개의 나무를 정성스레 심은 것이다. 멀리 北海道부터 남쪽 끝인 沖繩까지... 그 나무들이 언제까지 커서 진짜 숲을 이룰 것인지 알 수 없어도 아마도 10년이 지나면 그들나라의 성장과 발맞추어 무성하고 포근한 푸른 정이 넘쳐흐르기를 바라면서 심었으리라.

세째날은 주최자측에서 마련한 여러 스케줄에 따라 각자가 자유로이 취미와 팀 별로 관광, 견학, 위락 등을 즐기는 것으로 하여 전국대회의 모든 행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나는 이들 일본 건축사들의 전국대회를 참관하고 본대로 느낀대로 여기에 소개를 하였다.

그들은 이 행사를 47년에 한 번 밖에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이날을 위해 1년동안 대내적으로는 물론 관계단체 기관 등과 수 많은 계획, 협의, 협조를 거쳤으며 보다 뜻있고 자랑스러운 대회를 장식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으면서 그리고 또한 이 행사를 위한 협찬자가 각계각층의 협회, 단체, 업체 등이 6백 60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의 단합적기질을 다시한번 마음깊이 새기면서 그곳을 떠났다.

끝으로 日本建築士會聯合會 회장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석상에서 우리나라 건축사법제도가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좋은 점이 아주 많다고 항시 이야기하는 日本連合會 太田회장이 본인에게 들려준 말을 여기에 남기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금년여름 日本建築學會 창립100주년 행사(일본 황태자 부부 임석)에서 中共의 건축학회회장이 나에게 우리도 이제 건축사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그 때 나는 서슴없이 우리나라 법은 별로 참고가 되지않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건축사법을 연구하면 아주 좋은 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노라」고.

일본측 회장단과 우리 일행

